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417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7년 12월 28일 (음력 11월 11일) 목요일

성과 없는 5·18 암매장 발굴...내년에도 계속



5·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자를 찾기 위한 올해 마지막 암매장 발굴 조사도 끝내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지난 달 6일부터 옛 광주교도소를 시작으로 화순 너릿재, 옛 상무대 인근 광주전지전거도로까지 52일간 진행된 암매장 유해 발굴은 내년을 기약하게 됐다.

5·18기념재단과 대한문화재단은 이날 오전 옛 상무대 인근 광주전면 자전거

도로 부근에 대한 암매장 발굴 조사를 벌였다.

폭 3m, 길이 9m, 깊이 1~2m 가량을, 두 구간으로 나눠 굴삭기로 파내려 갔지만 암매장 흔적을 찾지 못했다.

"5·18 당시 아버지와 경운기를 몰고 가던 중 대형 굴삭기, 덤프 트럭 6대를 동원해 땅을 파 (무인가) 묻는 작업을 했다"는 제보가 들어온 곳이다.

지난달 6일부터 옛 광주교도소 시작 52일간 진행 예산 확보·날씨 여건 감안 내년 2~3월께 재시작

제보자가 지목한 장소 주변에서는 땅속 탐사레이더(GPR·Ground Penetrating Radar) 분석 결과 유의미한 이상 신호가 감지되기도 했다.

하지만 발굴 조사 결과 이상 신호는 암매장 유해가 아닌 땅 속에 묻혀 있던 돌덩이가 원인이었다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념재단은 이날 광주전면 자전거 도로를 끝으로 올해 암매장 발굴 조사를 마무리한다.

내년에는 옛 광주교도소 발굴 조사에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테니스장 주차장에 매립돼 있는 흙을 들어내는 작업을 벌이는 등 발굴 조사 범위를 확대한다. 예산 확보와 날씨 여건을 감안할 때 암매장 발굴 조사는 내년 2~3월께 다시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기념재단은 또 1995년 5월29일 서울지검 조사에서 옛 광주교도소 암매장 사실을 털어냈던 5·18 당시 3공수여단 본대장 김

모 소령 등을 직접 찾아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설득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양심 고백이 나오지 않고 있는 7공수와 11공수 군인들의 증언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김양태 기념재단 상임이사는 "포기할 일이 아니다. 반드시 찾아야 한다. 암매장된 유해를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념재단은 지난달 6일부터 옛 광주교도소 북쪽 담장으로부터 2.5~5.0m 떨어진 117m 구간을 유력한 암매장지로 추정하고 발굴조사에 나섰지만 암매장 관련 흔적을 찾지 못했다.

이후 북쪽 담장 울타리 넘어 공터, 서쪽 담장 주변, 감시탑 주변과 화순 너릿재 터널 인근 등 제보자들이 지목한 곳에서도 끝내 발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최남규 기자

Photo漫評

한국당의 현주소

당원위원장 교체 대상인 류어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최근 자신을 '주막집 주모'로 비유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해 '낯설' '다들' '며' '반격'에 '나' '섰다'.

앞서 홍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막 집 주모의 주막' 같은 것을 듣고 있을 시간이 없다. 어느 당직자의 말이다라며 "자유한국당이 새롭게 시작한다. 중산층과 시민을 위한 정당으로 새로 태어난다"고 말했다. 홍 대표의 '주막집 주모' 표현은 연일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류 최고위원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와 관련, 류 최고위원은 관련 기사를 링크한 후 페이스북에 "지금도 돼지 발정제 갖고 다니시는 건 아니죠. 홍 대표의 여성비하 이제 더 이상 참기 힘들네요. 외교적 격리를 바랍니다." 관련 인사들의 속세를 상상해 본다.

조인호·자료사진=뉴시스



전남 올해 최대 뉴스는 '100원 택시'

전남도 대표 교통복지정책으로 전국 확산 모델이 된 '100원 택시'가 올해 전남도의 최대 뉴스로 선정됐다.

전남도는 지난 25일까지 6일간 도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2017 전남도정 10대 뉴스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해 10대 뉴스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다음으로 '이낙연 총리 임명' 361명(39.8%), 'KTX 무안공항 경유 내년 예산 반영' 360명(39.7%), '한진공대 설립 국정 과제로 본격 추진' 354명(39%), '여수 경도 등 해안·섬 대규모 투자유치 추진' 267명(29.4%) 등의 순이었다.

'전라도 대표 관광지 100곳 선정', '전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26일 여수시 여수세계박람회장 엑스포홀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전라남도 전시부스에서 전라남도 1호 100원 택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도민들의 관심도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됐다"며 "앞으로도 여론을 잘 살피고, 도민에게 필요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뒷받

침해 '활기'와 '온정'과 '매력'이 있는 전남 건설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도·도민·공무원 대상 10대 뉴스 인터넷 설문 조사 실시 이낙연 총리 임명·KTX무안공항 경유 예산 반영 등 선정

설문조사는 올 한 해 동안 언론에 보도된 도정 뉴스 가운데 도민들의 관심을 받았던 43개 주요 뉴스에 대해 10개 뉴스를 복수 선택토록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총 907명이 응답했다.

조사 결과 '전남도 대표 교통복지모델 100원 택시 최우수 선정'에 530명(58.43%)이 응답해 올해의 최대 뉴스로 선정됐다.

도 나눔 숲 조성 전국 최우수', '전라도정 도천년기념사업 본격화', '2년 연속 국비 6조 확보', '노인일자리 5년 연속 전국 1위' 등도 10대 뉴스에 올랐다.

안기권 전남도 대변인은 "전남의 대표 복지시책인 '100원 택시' 사업이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 전국 확산모델로 자리매김한데 이어 10대 뉴스 중 1위로 선정돼

테 / 마 / 紀 / 行

자비 향기가 흐르는 탑산사

시인·수필가 유용수



인 천관보살을 위로라도 하는 걸까. 아니면, 출연한 사리진 89 암자를 기억하고 찾아오는 걸까. 불안의 시대 속에 허기진 생각들을 쏟아낸 반자굴에서 몇 발자국 오르니 날선 산죽 너머 이끼 낀 축대위에 천관보살의 향기가 흐르는 천년 사찰 탑산사가 스멀거린다.

전라남도 장흥군 대덕읍 언지리. 비바람과 구름이 추풍겨러는 하늘길 아래, 인도의 아소카왕이 아유왕타를 세워 부처의 사리를 봉안했다는 정엄한 자리에 800년(신라 애장왕)영통화상이 창건하여 의상대사와 법랑대사, 담조대사, 침풍선사등 많은 고승이 수행했던 탑산사는 화려한 과거를 묻고, 부처의 가피와 천관보살의 지혜를 전할 뿐, 산사는 시들한 햇살이 내려앉은 여색꽃에 빛나고 있다.

속진俗塵 몸, 슬그머니 법당에 밀어 넣는다. 시린 하늘과 쪽빛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자비의 눈과 마주하며 몸 안에 익어가는 달걀지렁이 기억들을 끄집어낸 후, 꿈꾸는 기도를 가만히 털어놓는다. '내가 나를 사랑하듯 남을 사랑하게 하소서. 남을 이롭게 해라 내가 이롭게 된다'는 지리이타利利利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이제는 가슴에 묻어둔 욕심 하나를 비워낼 줄 아는 용기를 주소서. 그리하여 집

무성한 팔배나무가 가을볕에 멎든 잎사귀를 털어 내자 붉은 열매로 또다시 화려함을 토해내는 것을 보면, 번뇌의 경계를 벗어난 적멸은 생명이 함께 사라지기에 처연하게 아름다워지는 걸까. 나무 가지마다 붉게 쌓아놓은 허영조차도 간수하지 못하고 '후두둑' 쏟아낸 자리를 지나, 우리는 숲의 끝자락에 걸린 산사로 들어와 고단한 탐욕과 곱진한 삶을 벗어 가버릴 지고자 하는 것이다. 가을볕이 촉촉히 파고든 십일월, 천관산 탑 공원을 둘러보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이백의 시 한 구절을 읽으며 곱게 난 년출고개를 오른다.

'가을바람에 가을 달 맑고 밝은데 / 秋風清 秋月明 / 낙엽은 우수수 모였다가 흩어지고 / 落葉零 飄散 / 까마귀 잠자다 소스라쳐 놀라네 / 寒鴉驚 復'.

잔대 꽃 하나가 감사함과 은혜로움을 품고 교교한 가을빛에 흔들거린다.

어느 누구와 사랑스러운 눈 맞춤 한번 해보지 못한 가련한 쥐꼬리만초는 화려한 지홍색을 두르고 있

는 듯 없는 듯, 가을볕에 몸을 태우고 있고, 갈바람은 후미진 골짜기에 무한사랑을 품고 남모르게 피었다가 함초를 지고 있는 노란 마티리 꽃의 탄식과 설움까지 털어내고 있다.

산을 뚫는 구름이 비바람과 함께 적요를 헤치며 휘둥다.

조락凋落하는 산허리로 흐르는 애제는 염불소리에 뒤엉키고 찌든 어둠을 들숨과 날숨으로 토해내며 오를 때, 깊은 응이를 움켜쥔 키 작은 소나무에서 쏟아내는 포근한 것 내음으로 위로받으며, 걸음을 멈추고 들려오는 비바람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 멀리서 들려오는 풍경의 울음소리에 휘청거리는 여색꽃 자리에서 가을의 달달한 향기와 숲 막힐 것 같은 계절의 화려함을 끌어안고 쪽빛 바다를 바라본다.

바람이 휘청거릴 때마다 바다를 건너온 파도는 수천만 년 전부터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변함없이 밀려와 검게 멎든 돌밭에 하얀 포말로 자리지르는 것은 굴곡진 세월 속에 상처받

착과 같듯 무지와 분노에서 벗어나 평온함을 맞출 줄 아는 진정한 행복을 얻게 하시고 거친 삶 속에서 망가지고 상처 난 영혼, 잠시 멈추고 돌아볼 줄 아는 지혜를 주소서.

내 안에 양갈치게 익어 가고 있는 펑펑한 삶의 자락들을 내려놓고 법당을 나오자 바다를 밟고 올라온 바람이 가슴을 덮치며 지나가고 침풍당 침風堂 지붕 위로 장엄한 가을이 흐른다.

"스님, 침풍당이라는 당호가 궁금합니다."

일생을 팔을 괴고 비스듬히 누워 항상 하두를 놓치지 않고 정진하다 좌탈임명으로 열반에 든 침풍 현변선사(林邊 懸邊, 1616~1684)의 삶과 스님의 유언에 따라 법구를 금화산 징광사(鎭靜 刹) 바위틈에 모셨는데, 새나 짐승이 달려들지 않고 그 모습이 변하지 않아 3년 뒤 사승스님들이 대비하고자 할 때, 스님의 법구가 저절로 불길에 휩싸여 연기와 함께 하늘로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전하는 도성스님의 이야기 속에서 과거로부터 배우는 한 수행자와 대면하고 있다. 무엇을 내려놓았기에 저렇게 평온한 모습일까. 가사 장삼 한 벌 걸린 침풍당에서 한 수행자의 무소유 삶을 더듬다가 문을 열고 나온다.

형클어진 생각을 추스르지 못하고 찾아온 산사에서

스님의 한마디가 새겨진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바쁘게 쫓아가는 일상을 잠시 멈추고 지금 그 자리에서 뒤돌아보고 살필 줄 아는 조고각하(靜觀脚下)의 마음이 비울 아녔습니까." 긴 숨 물이쉬며 들레단을 내려오니 바다로 이끌고 있는 노을에 마지막을 태우는 붉은 팔배나무 열매가 산길을 재촉한다.